

5·18 진상규명조사위 구성을 위한 ‘광주시민 5·18 시낭송회’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서 제대로 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광주시민 5·18 시낭송회’가 23일 오후 광주문화재단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김애리 기자

“아, 5월이여”... 詩로 결집한 시민들의 함성

대한민국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서 제대로 된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 구성을 위한 ‘광주시민 5·18 시낭송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광주매일신문·광주매일TV가 주최하고 문학메카낭송포럼이 주관한 이 행사는 23일 오후 광주문화재단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에서 진행됐다. 진행은 방송인 윤지현씨가 맡았다.

이날 행사에는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 임원식 광주예총 회장, 황하태 대한민국 문학메카 본부 이사장, 김종 (조선훈 교수) 시인, 김용하 (조선훈 사법대 겸임교수) 전 광주시인협회장, 정운태 조선대 명예교수, 오소후 시인, 이광일 시인, 김재길 현대문예 작가회장, 조도현 빛가온 운동 대표, 남성숙 광주매일신문 대표이사 등 1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시낭송회는 ‘제대로 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구성’을 위해 기획됐다. 1980년 당시 계엄군이 자행한 광주학살만행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먼저 ‘제대로 된’ 진상규명 조사위를 꾸려야 한다는 데서 출발했다. 이에 광주시민의 염원을 담아 5·18을 다룬 시 30여편을 선별해 낭송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본격적인 릴레이 시낭송에 앞서

광주매일신문 주최·문학메카낭송포럼 주관

‘5월 정신’ 담은 30여편 시 낭송...감동 선사

김남로의 사람들은 모두 입술이 젖어 있었다
김남로의 사람들은 모두 발바닥에 흙이 묻어 있었다
김남로의 사람들은 모두 보리피리를 불고 있었다

-김준태 시 ‘김남로 사랑’ 중

시낭송 참가자들과 내빈들은 5·18을 주제로 다룬 영상 ‘그날이 오면’을 시청했다.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축시 ‘저울’을 낭송하기에 앞서 “문학·역사·철학 중 제일은 문학”이라며 “5·18 관련 시낭송회를 열고 함께 참여해 준 문학메카 낭송포럼 회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임원식 광주예총 회장은 축사에서 “광주시민들은 매년 5월만 되면 그때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느끼면서 살고 있다”며 “오늘 5·18 시낭송회를 통해 시인이 쓴 시를 서글픈 마음으로, 때로는 5·18을 되새기며 희망의 미래로 함께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시 낭송은 ▲제1부 광주의 노래

▲제2부 인연의 노래 ▲제3부 시극/오월, 그대 이름을 부릅니다 등 3부로 나눠 진행됐으며, 문학메카낭송포럼 회원들이 대거 참여했다.

첫 테이프는 김미경씨가 끊었다. 김씨는 이근모 시인의 ‘5·18연가’를, 신은주씨가 김준태 시인의 ‘금남로 사랑’, 정순애씨가 신현영 시인의 ‘국립묘지’ 등을 낭송했다.

이어 이영미씨가 김용하 시인의 ‘꽃피고 새 우는 5·18’, 고달영씨가 임원식 시인의 ‘임을 위한 행진곡’, 김창목씨가 김종 시인의 ‘광주 가는 길’을 선사했다.

이날 시낭송회를 위해 초청 인사로 방문한 이선주씨는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 김노급씨는 홍윤숙 시인의 ‘장식론’, 조옥녀씨는 송수권

시인의 ‘여승’을 들려줬다.

문학메카 낭송포럼의 회장인 고명순씨는 도종화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을 낭송하며 이날 릴레이 시낭송을 마무리했다.

시낭송회의 대미는 오소후 시인의 ‘오월, 그대 이름을 부릅니다’를 기반으로 제작한 시극으로 장식됐다. 박지수씨가 내레이션을 맡고 윤희정 (자유 역), 나종복 (인근 역), 김동숙 (민주 역)씨가 출연해 정경옥·강경연씨가 퍼포먼스를 펼쳤다.

이들은 생생한 연기를 통해 5월 그날의 함성을 재현하며 객석에 감동을 전했다.

남성숙 광주매일신문 대표이사는 “5·18민주화운동이 어느덧 39년째를 맞이하지만, 제대로 된 5·18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에 이 행사를 마련하게 됐다”며 “5·18 당시 벌어졌던 발포명령과 성폭행 등 언론에서 밝혀진 여러 사실들이 실제 진상조사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남 대표이사는 “이날 시낭송회를 통해 지난 39년간 쓰여졌던 시를 통해 5·18의 숭고한 정신과 가치를 다시 생각하고 올바른 진상규명의 길에 함께 마음을 모으자”고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광주매일TV를 통해 생중계됐다.

/정겨울 기자

‘김원중의 달거리’ 올해도 달린다



‘염치’ 주제 105번째 공연

27일 광주피크뮤직홀

광주정신과 남북평화를 노래하는 ‘김원중의 달거리’가 올해도 대장정에 나선다.

올해 첫 ‘김원중의 달거리’ 공연이 오는 27일 오후 7시30분 광주음악산업진흥센터 1층 광주피크뮤직홀에서 열린다.

달거리 공연은 2003년부터 ‘복한 아이들을 위한 빵 만드는 공연’으로 시작해 현재는 우리나라 분단 상황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 민족의 아픈 현실을 예술가들의 다양한 메시지로 담아 선보이는 광주 대표 공연이다. ‘바위섬’, ‘직녀에게’로 알려진 가수 김원중을 필두로 광주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이 참여한다.

올해는 지역 아티스트와 신세대 음악인의 실험적이고 전위적인 공연을 펼친다.

다는 구성이다.

가수 김원중과 느티나무밴드, 샌드 애니메이션 작가 주흥, 소프라노 유형민, 강운숙의 재즈여행, 팼페라 빅맨싱어즈, 월드뮤직그룹 루트머지, 포크와 인디의 주자인 듀오 꽃향, 이진우, 프롤로그, 바다프로젝트, 박성언밴드, 우물안 개구리가 참여한다. 화가 한희원과 지역 미술인을 비롯해 다양한 초대손님이 함께한다.

5월 공연은 ‘염치 (廉恥)’를 주제로 이뤄진다. ‘대한민국은 염치가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해, 한반도와 민주주의를 지켜내는데 흘렸던 전라도의 피와 땀을 생각하며 공연으로 풀어낸다는 구상이다.

이날 공연에는 제9회 전국 오월창작가요제 환영공연팀 ‘광주음악인합동공연’과 초대손님 최석영 작가의 가상현실 페인팅 퍼포먼스 (해금 김단비·피아노 정관영 협연)를 펼친다. /정겨울 기자

제1회 광주창작희곡공모전

정성훈 ‘고스트’ 대상 수상

서구문화원 주최...우수상 이강홍 ‘양동시장 왕씨’

‘제1회 광주창작희곡공모전’ 대상에 정성훈 (46)씨의 ‘고스트’가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광주 서구문화원은 23일 “광주시가 광주를 무대로 하는 브랜드 연극을 추진 중인 가운데 아마추어 극단들의 축제인 광주시민연극제 공연 작품을 위한 당선작이 발표됐다”며 “대상에 정성훈씨의 ‘고스트’, 우수상에 이강홍씨의 ‘양동시장 왕씨’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마련된 광주창작희곡 공모전은 제5회 광주시민연극제를 앞두고 기획됐다. 광주의 역사와 문화자원, 인물을 주제로 한 연극작품을 무대에 올리기 위해 서구문화원이 서구의 지원을 받아 개최했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김대현 한국문인협회 희곡분과 회장은 “대상인 정성훈의 ‘고스트’는 사건의 연극적인 배치와 무대조형화 그리고 인물간의 갈등이 간결하게 이뤄졌다”며 “단지, 미래를 이끄는 극의 시점이 추가됐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평했다.



정성훈



이강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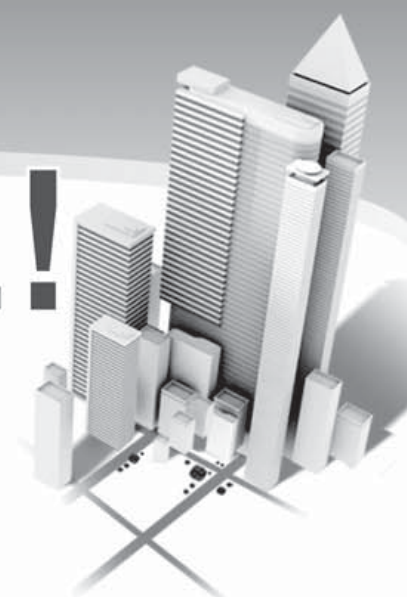
또 우수상인 이강홍의 ‘양동시장 왕씨’에 대해서는 “대사에 생활이 묻어 있어서 등장인물의 매력을 한결 살린 작품이다. 그러나 캐릭터의 구축에 비해 결론으로 치닫는 사건은 너무 단순해서 갈등부분이 약하다”고 평했다.

한편, 조대부중 교사로 재직 중인 대상 수상자 정성훈씨는 “1999년 이후 20년간 국어교사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여전히 5·18을 왜곡하는 사람들을 보며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5·18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광주시민이 겪었던 마음을 전달해 주기 위해 작품을 썼다”고 밝혔다. /정겨울 기자

방수제 · 바닥재 · 훈화제 · 천연 황토 코팅제 건물 보수제 전문 생산업체

아직까지 방수로 고민하십니까? 기술이 필요없습니다.

방수! 바닥! 직접 공사하세요!



적용현장 및 시공범위

옥상, 외벽, 지하실, 공장바닥, 주차장, 휴집, 물탱크, 양어장, 수영장, 화장실 타일, 기와집, 내구성 및 평활성을 요구하는 현장, 기타 방수를 요하는 모든 건축물

※전화 문의시 방수·바닥재 관련 책자를 보내 드립니다.
(제품 구입시 시의 지역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시중에 검증받지 않은 방수제품들이 난무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하여 판매 및 시공하는 피해사례가 있다고 있습니다.
드림코리아는 특허 인증 품질 보증 업체입니다.



적용현장 및 시공범위

[DK-301] 강력 접착 도막 방수제
[DK-302] 초강력 다목적 혼합용 방수제
[DK-303] 녹색 접착 코팅 방수제
[DK-304] 회색 접착 코팅 방수제
[DK-305] 드림데칼 3
[DK-306] 탑코팅 수용성 투명 방수제
[DK-307] 균열 보수제
[DK-308] 황토리
[DK-1000] 드림탄
[DK-2000] 드림콘
[DK-3000] 슈퍼 드림을 골드

적용현장 및 시공범위

- 빗물은 막고 습기는 내보낸다
- 기술이 필요없다
- 숨을 쉬기 때문에 들뜨지 않는다
- 경제적이다
- 무독성 무기질 친환경 방수제다
- 습윤상태에서도 할 수 있다
- 미끄럼, 방지기능을 한다
- 육식 및 화장실 타일을 뜯지 않고도 할 수 있다
- 특허 인증 신기술 공법이다
- 소비자가 인정했다

자매품 바르는 황토벽지 천연황토코팅제 DK-308 황토리



드림코리아
DREAM KOREA

전국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무담보 무보증)
문의 : 080-362-7788
www.dreamkorea.biz